EU의 새로운 출발과 세계 정치 · 경제 질서

권 오 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ohkwon@cerik.re.kr)

지난해 12월 1일 EU의 미니 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리스본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에따라 EU는한단계높은차원에서 정치 · 경제 공동체를 지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유럽합중국'이 탄생하게 됐고 '유럽 대통령'도 등장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전개될 변화에많은관심을나타내고있다.

그러나바로수EU 집행위원장은 기자 회견에서 리스본조약이 발효된다고 해서거대 국가가탄생하는 것은아니라고 선을그었다고 한다. 즉, EU는 국가가 아니고 연합이자 공동체이며, 일부 언론에서는 유럽 대통령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EU이사회 상임 의장(President of European Council)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마도 이러한 혼란은 EU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생소한 정치 · 경제 체제이기때문에 발생하는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에서의비중더욱커질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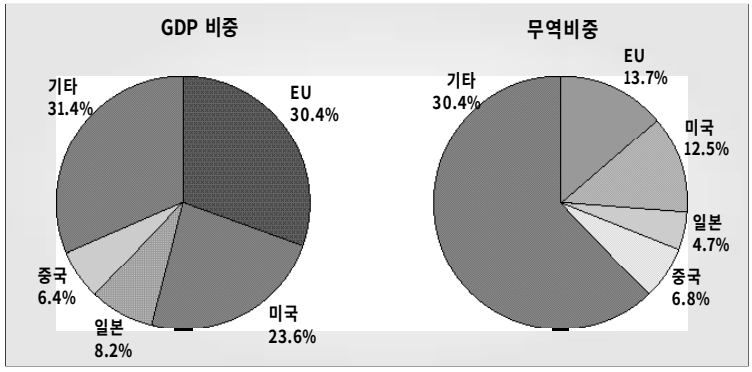
유럽의 새로운 체제 모색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E)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하에서 유럽의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처럼 보였고, 오랫동안 별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989년 이후 동유럽과 소련의 구체제가 무너지면서 EU는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구심점으로 질서를 회복하기보다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EU 쪽에 가세하였다. 1990년대 초반 12개국에 불과하던 EU는 점점 확대되어 이제는 27개국에 이르고 있고, 터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등 여러나라들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2 3년 이내에 30개국을 넘어설 가능성이있는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08년 현재 EU 27개국의 GDP는 약 18.4조 달러로 세계 전체 생산량의 30.4%를 차지하면서 미국(23.6%)이나 일본(8.2%), 중국(6.4%)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이다. 그런데 GDP에 비해 무역 비중이 낮은 것은 역내 교역이 80%로 높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 활동 측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Fortune 500에 드는 기업 중 본사가 EU인 업체가 163개로 미국(140개), 일본(68개), 중국(37개) 등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EU의 경제적 위상

리스본조약의발효로 EU는 통합의 심화(deeping)와 확대(enlargement)가 더욱 가속화되

세계 경제에서 EU의 경제적 위상



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의 심화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축소하는 대신 EU의 권한을 확대하며, 공동의 외교 안보 및 조세 정책을 시행하고, 회원국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한편 통합의 확대는 그동안 신규 회원국 가입이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로 미루어져 왔지만, 이제부터는 신규 가입의 외연적 확대가 본격화 될것이라는점이다.

유럽의 심화 · 확대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의 외연적 확대를 통해 유럽 경제는 대미 의존도를 낮추면서 생산 · 소비 · 투자 등에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면서 EU가 독립적인 슈퍼 파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유럽 변방의 신규 회원국의 진입은 EU를 종전보다 가난하게 하겠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보다 경쟁적인 연방제도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지역은 새로운 노동 공급원 역할을 하면서 노쇠한 느림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EU가 해체된 소련을 완전히 대체할 때까지 확대되어 약 35개국, 6억 가까운 인구를 품을 것으로 보기도한다.

정치 · 경제적이해관계절충이관건

하지만 이제까지 승승장구해 온 EU의 앞날에 대해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EU가 정치적 리더십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 안보 대표에 벨기에의 반 롬푸이 총리를, 외교 대표에 영국의 애슈턴 집행위원이 선출되었는데, 각국 간 세력 균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약체 지도자가 선출됐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경우, 국제무대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이것은 경제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가능성이있다.

또한 EU의 약점은 회원국 간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인구의 경우, 8,200만명의 독일은 41만명의 몰타에 비해 200배에 달하고, GDP 규모는 400배가 넘으며, 1인당 GDP는 룩셈부르크가 11만 달러로 불가리아의 6,560달러와 비교해 17배에 달할 정도로 편차가 크다. 각국의 상이한 정치 ·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이용이한것은결코아니다.

특히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아 경기 대책을 놓고 회원국 간에 의견 충돌이 잦는 등 통합보다는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역내 무역 비중이 높은 것도 EU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동유럽 국가의 침체가 서유럽 지역의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련된다는 점이다. 특히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은 동유럽의 경기 침체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새로운 건설시장의 가능성도

한편 리스본조약의 발효는 한 · EU FTA에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 EU FTA는 국제 협정으로 유럽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만, 이로 인해 발효가 지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것은 양측의 비준이 늦어지더라도 EU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잠정 발효를 통해 금년 중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미리 합의했기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인 EU와의 FTA는한국의업체들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관세 인하 폭이 한미 FTA보다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한 · EU FTA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입찰참가자 자격 심사에서 필요할 경우 발주국 내의 과거 실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업체의 보호 장치를 만들어 놓고있다.

그리고 한 · EU FTA를 통해 추가로 개방되는 건설 분야는 없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한국 업체들이 진출하기에는 용이하지는 않지만 진출을 시도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유럽 지역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공사 물량이 있고, EU가 요구하는 제도적 투명성 등을 갖추고 있어 신흥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EU는 동유럽 지역의 개발을 위해 연간 약 1,200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 물리적 통합에 중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면 장기적으로 유망한 새로운 건설시장이 열릴 가능성도크다고본다.

끝없는 전쟁에 시달려온 유럽이 하나의 연방 국가(United States of Europe)로 통합되기를 염원하였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꿈이 몽상이 아니라 현실로 한 발 다가서고 있다. 평화 · 번영 · 자유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면서 공평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이 인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수있기를바란다.